

# 악한 마음 vs 선한 마음

## 선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글. 김기중 가로건축 대표, 건축가

희극 <더러운 손>에서 장 폴 사르트르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야합이라는 좋지 않은 방법의 사용도 가능하다는 ‘현실주의자’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 선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는다는 건 신념에 대한 배신이라는 ‘이성주의자’ 간의 격돌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과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그것은 선한 목적과 선한 수단의 공존이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어떤 부조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한 수단으로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건축설계를 진행하면서도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편함이라는 선하지 않은 의도를 사용해서 긴장감이 넘치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람들은 도덕적 군주상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수단의 사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므로, 논리가 과장되거나 극단적으로 흐르기 쉽다. 정치는 다수결이라는 꺼림직한 방법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하지만, 건축은 문화로서 판단을 유보하고 가능성을 찾는 일원론적 사고가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정치와 설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생각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목적과 수단에 관한 논리를 건축 설계 과정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선한 의도의 설계와 과정이 반드시 좋은 건축물이나 장소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착하다 혹은 악하다 라는 표현은 삼가하고자

한다. 어떤 누가 과연 타인의 선악을 논할 수 있던 말인가? 그것보다는 다르다 라는 의미로 표현하면 좋을 듯하다. 우리는 주위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일단 겉으로는 ‘나도 이렇다’ 라는 데 이견이 없을 듯하다. 거기에 더해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생을 살고 있는 평화씨가 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월급을 착실히 저축하여 꽤 돈을 모았고,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취학 전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평화씨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며 아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건 아파트 층간 소음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평화씨에게 층간 소음은 괴로운 고민거리다. 그래서 평화씨는 결심하게 된다.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서 층간 소음 없는 생활을 하자고, 평화씨는 그날부터 발품을 팔아 교외에 값싸게 나온 작은 땅을 계약하고 주택을 짓기로 한다. 이 집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평화씨는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건축가를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얘기한다. 우리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어렵게 결심했고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니, 설계비를 상당히 저렴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 말을 들은 건축가는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들게 된다. 하나는 어차피 주택 설계는 이익을 남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런 좋은 뜻과 어려운 사정이 있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셈 치고 설계를 맡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고민되는 부분은 또 있었는데, 그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 비용 문제 때문에 내가 설계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어 건축물이 조악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는 보더라도 좋은 건축물이라도 남는다면 건축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꽤찮은 ‘아카이브’가 되어 향후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손해를 상쇄할 수도 있다. 이런 복잡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에서 강렬하게 느꼈던 클라이언트의 선함에 대한 감동 때문에 건축가는 어쩌다 보니 설계를 맡기로 결정한다. 선함과 선함에 감동한 또 다른 선함 덕분에 건축가는 협력 업체에게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계약을 해나간다. 낮은 금액의 계약이 불러올 파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 시간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행이 나오지 않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다른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 원인과 이 선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장하면서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해자.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결별하면서 개인 심리학을 연구하게 된다. 아들러가 얘기하는 ‘개인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즉 어떤 특정한 한 영역으로만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전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개인이 사회 및 공동체와 맺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 개인은 생물학적 관점인 성적 본능과 충동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을 향한 의지를 지닌 목표 지향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트라우마를 겪었어도 창조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아들러의 인간은 목표 지향적이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표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sup>

또한 선한 클라이언트와 그의 선함에 흔들린 건축가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 각자의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트라우마는 미움 받을 용기가 없어 인정 욕구에 종속된 인간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아들러는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은 결국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을 수단으로 삼게 된다고 했다. 나라는 존재를 억누르게 되는 결정 방식은 괴로울 뿐이다. 일단 문제는 이 정도로 해 두겠다.<sup>2</sup>

여기서 클라이언트와 건축가는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목표 지향이란 부분이 클라이언트와 건축가 간에 공통 분모가 되어

1 『아들러 심리학 입문』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 김문성 옮김, 스타북스, 2015  
2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지음, 전경아 옮김, 김정운 감수, 인물루엔셀(주), 2014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그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좋은 건축을 만들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열등감, 인정 욕구, 목표 지향이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수는 있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건축적으로는 물리적인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잠재력과 활용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열등감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 ‘선한 클라이언트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이다. 그 열등감에 대한 반응으로 대인관계에 선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다. 건축가는 선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건축가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한다.

둘째, 사람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소속감은 자연스럽게 인정 욕구에 편향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정 욕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보다 중요하다. 이 선한 사람은 부모, 아내, 자녀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노력해왔을 것이다. 가족을 위한 건축은 기대 부응의 절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감이 없어졌을 땐 이 선한 사람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셋째, 목표 지향에서는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목표 지향적 심리는 건축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은 익숙한 공간이나 형태가 아닌 경우 두려워한다. 이것은 자신은 이런 공간에서 편안하다, 라고 규정해버리는 원인론적 사고다. 목적론적 사고라면 나와 가족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나 형태가 필요한지 찾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서로 협의된 새로운 건축의 탄생도 가능할 것이다.



전유창 지음, 제대로템 발행, 2만8000원